

# 이보다 더 싸순 없다! K5 150만, 임팔라 630만원 할인

## 12월은 차량 구매 최적기

초저금리 할부, 조기구매 할인 등 완성차 업체, 연말 프로모션 풍성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와 G90, 한국지엠의 말리부(페이스리프트) 등 신형 모델이 출시되면서 올 하반기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신형 모델과 경쟁과 구형 재고분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고 고객잡기에 나선다. 특히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5%→3.5%) 효과와 통큰 할인으로 막판 판매량을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는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과 일부 모델들에 한해 구매 가격을 대폭 낮춰주는 프로그램 진행한다.

현대차는 자사 승용차와 RV(레저용 차량) 전차종에 1.5% 할인, 1.5% 저금리,

기아차 '2019년형 K7'.



1.5%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을 묶은 '트리플 기프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적용 대상은 9월 이전 생산된 차량으로 제한한다. 제네시스 브랜드와 EV, 넥소, 투싼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출고 우대조건도 있다. 이번달 1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10만원 할인된다. 12일부터 24일까지 출고되는 차는 5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수입차나 제네시스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차량을 팔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 할인과 100만원 캐시백을 합쳐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트레이드인 프로그

램'도 운영한다.

현대차는 연말 공식 출시를 앞둔 대형 SUV 팰리세이드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사전계약을 이용하면 내년 인도받아도 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을 보장한다.

기아차는 모닝과 K5, K7의 12월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조기구매 할인, 초저금리 특별혜택, 사은품 증정 등 3개 혜택 중 하나를 제공한다. 조기구매 할인을 이용하면 모닝은 50만~70만원, K5는 130만~150만원, K7은 70만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초저금리 할부를 선택하면 모닝은 0.1% 초저금리와 40만원 할인이 제공된다. K5·K7 구매 고객에게는 0.1% 초저금리, 120만원 할인 조건이 적용된다.

한국지엠은 주력 판매 모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메리 웨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파크 최대 270만원, 트랙스 최대 340만원, 말리부 최대 560만원, 임팔라 최대 63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코란도 투리스모를 최대 390만원 할인해 주는 12월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달에 쌍용차를 구매하면 일부 모델에 한해 최대 티볼리 브랜드 200만원, G4 렉스턴 360만원, 코란도 C 39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4일까지 구매 고객은 전 모델 10만원(렉스턴 스포츠 제외) 할인해 주는 얼리버드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고객들의 구매 부담을 최소화하는 스페셜 유예할부 프로그램 G4 부담제로할부를 운영한다. 6~48

개월, 유예율 0~80% 범위에서 할부기간 및 유예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선수율 10% 이상)

르노삼성은 신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추가 지원, 저금리 금융상품을 포함한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르노삼성은 '굿바이 프로모션'을 통해 SM6를 비롯한 전 차종(마스터, 전기차 제외) 구매 시 개별소비세 0% 추가 지원, V7 내비게이션, S-Link 패키지 등 추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 제공한다.

'개별소비세 0%'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개별소비세 3.5%에 해당하는 금액(차종·트립별 차량 기본가격 기준)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종별로 SM6 70만~100만원, QM6 75만~110만원, QM3 70만~80만원, SM7 80만~115만원(19년형 선택 시 35만원 추가 중복 할인), SM5 60만~70만원, SM3 45만~60만원, 르노 클리오 60만~70만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차 그랜저택시 100만km 무고장 기록

성능·엔진 내구성 입증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택시가 100만km 무고장 주행 기록을 세우며 성능과 내구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현대차 영동대로 사옥에서 그랜저 택시로 100만km 무고장 주행을 달성한 김은수 고객을 초청해 '그랜저 택시 100만km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1998년부터 택시 운행을 시작한 김은수 씨는 10년 전인 2008년 그랜저(TG) 택시를 구매했으며, 10년간 운행일 하루 평균 400km씩 주행한 결과 지난 11월 16일 주행 거리 100만km를 달성했다.

10년간 하루 평균 15시간의 장시간 운행에도 김은수 고객의 그랜저 택시는 잔고장 없이 100만km를 주행했다.

특히 차량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가 교체 흔적 없이 신차 출고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랜저 택시는 이번 '100만km 무고장 주행 달성'을



허병길 현대차 판매사업부장(왼쪽)이 김은수 씨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통해 우수한 성능과 엔진 내구성을 입증 받았다.

현대차는 김은수 씨에게 '100만km 무고장 주행 달성' 감사패와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김은수 씨는 신형 그랜저 택시 모델로 차량 교체를 결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폴크스바겐 '아테온' 본격 판매 돌입

개소세 적용 가격 5200만원부터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디 아테온(The Art:eon)'에서 프리미엄 세단 아테온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아트(Art)'와 영겁의 시간을 뜻하는 '이온(eon)'을 합성해 만든 '아테온'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세단으로 꼽힌다. 아테온은 스포츠카와 같은 외관으로 우아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수평 라인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체를 감싸는 캐릭터라인과 조화를 이뤄 강렬한 인상이 구현됐다.

아테온의 휠베이스는 2840mm, 뒷좌석 레그룸 1016mm, 헤드룸 940mm 수준으로 성인남성 3명이 타기에 충분하다. 63L의 트렁크 공간은 뒷좌석을 접을 경우 1557L로 넓어진다.

파워트레인은 2.0리터 TDI 디젤 엔진



폴크스바겐이 5일 출시한 '아테온' /폴크스바겐 코리아

과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SG)가 조합됐다. 국내 판매 트림은 전륜구동 기반 '엘레강스프리미엄'과 '엘레강스프레스티지' 등 2가지로 구성됐다. 가격(개별소비세 인하분 적용)은 각각 5216만8000원, 5711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5.0km(도심 13.6km/l, 고속도로 17.2km/l)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5g/km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www.pdna.co.kr

*It's Magic!*

**P+DNA**

**"다시 어린 피부"**  
크리스마스엔 DNA 마법을 선물하세요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바다 송어의 물산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동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없었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